

메르스 시름 한국에 'Queen비'

박인비, 메이저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3연패

박세리 넘어 메이저 최다승

LPGA 역대 3번째 메이저 3연패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도 탈환

박인비(27·KB금융그룹)가 14일(한국시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정상에 오르면서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한국 선수로 우뚝 섰다.

2008년 US오픈에서 첫 메이저 우승컵을 거머쥔 박인비는 2013년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현 ANA 인스퍼레이션), LPGA 챔피언십(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US오픈 등 3개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며 '메이저 퀸'으로 등극했다.

특히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

십 우승컵을 들어 올린 박인비는 여자골프에서 단일 메이저 대회 3연패를 이룬 사상 세 번째 선수가 됐다.

박인비는 한국 여자골프 중 최다 메이저 우승(6승) 기록 보유자도 됐다. 이전까지 박인비는 박세리(38·하나금융그룹)와 한국인 메이저 최다승 타이(5승)를 이루고 있었다. 박세리는 1998년 5월 LPGA 챔피언십에서 한국 사상 첫 메이저 우승을 거둔 이후 US여자오픈(1회), LPGA 챔피언십(3회), 브리티시여자오픈(1회)에서 정상을 맛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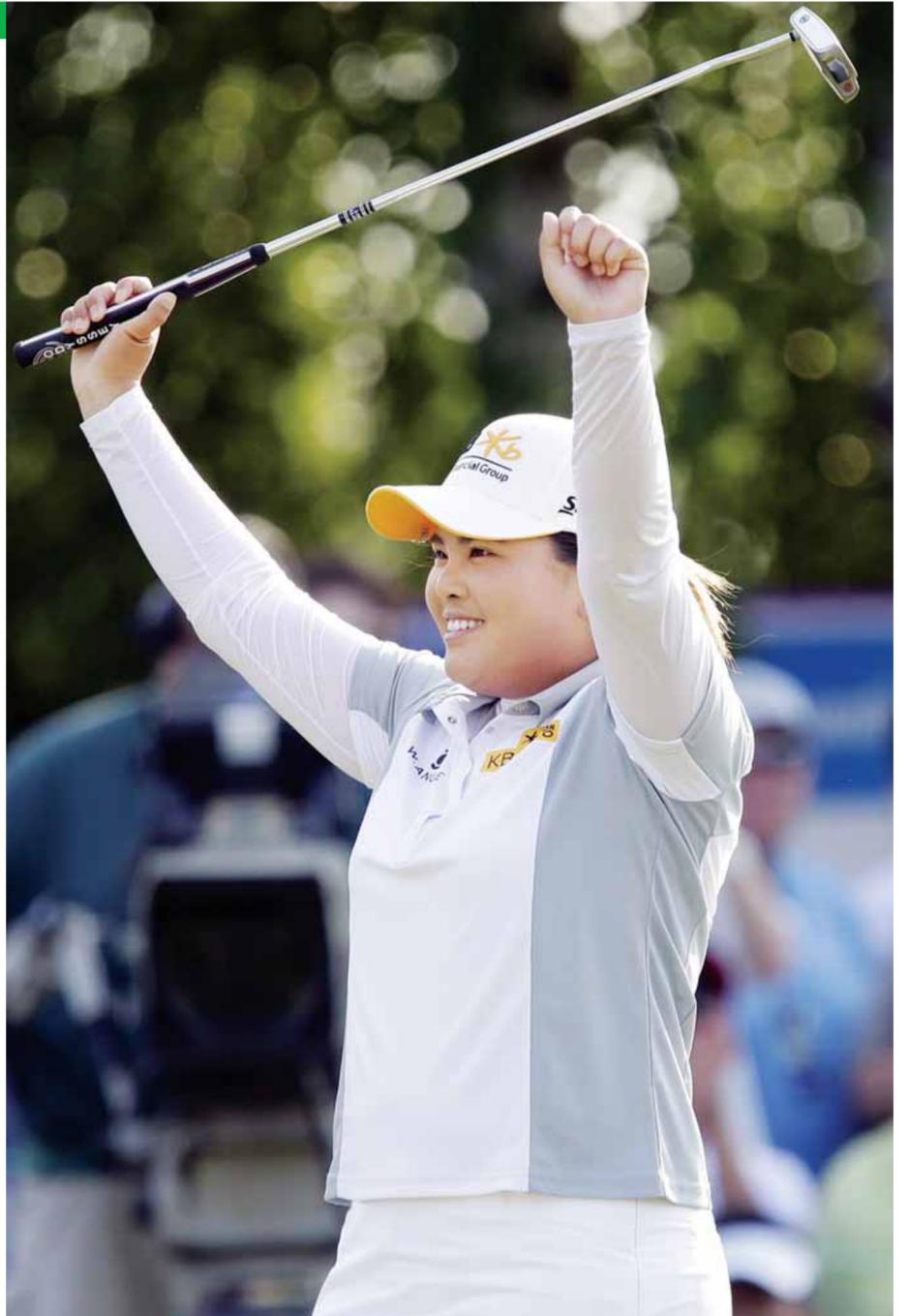
신지에(27·스리본드)는 박인비가 정복하지 못한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만 2회(2008·2012년) 우승했다. 2004년 박지은(36), 2005년 김주연(34)과 장정(35), 2009년 지은희(29·한화), 2011년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2012년 최나연(28·SK텔레콤)과 유선영(29·JDJ), 2014년 김효주(20·롯데)가 각각 1회씩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다.

박인비의 이날 우승으로 한국 여자골프는 1998년 이후 통산 21번째 LPGA 투어 메이저 우승을 기록했다. 1998년부터 이날까지 열린 72개의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의 약 30%에서 한국인이 우승한 셈이다. 1998년부터 2015년 사이에 한국인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우승이 없던 해는 1999·2000·2003·2007·2010년뿐이다.

박인비는 최근 5년간 LPGA 투어 메이저 대회를 제패한 선수 중에서도 최다승을 거둔 메이저 정복자다. LPGA 투어 역사상으로도 박인비의 메이저 6승은 팻 브래들리, 베스티 킹, 패티 시한, 캐시 윌트워스(이상 미국)와 함께 공동 9위에 해당한다. 역대 LPGA 투어 메이저 최다승 기록은 15승을 이룬 패티 버그(미국)가 보유하고 있다.

박인비는 메이저 대회에서 1승만 추가하면 LPGA 투어 '현역 전설'인 줄리 잉스터(미국), 카리 웹(호주)과 어깨를 나란히(7승) 하게 된다. 현역 선수 중에서 박인비 보다 많은 메이저 승수를 쌓은 선수는 잉스터와 웹, 그리고 미국남자프로골프(PGA) 투어의 타이거 우즈(미국·14승) 뿐이다. 박인비는 이날 우승으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도 회복했다. 그는 현역 최고 자리를 넘어 전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해냈다” 박인비가 1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해리스 소재 웨스트체스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마지막 라운드에서 승리를 확인한 뒤 두 손을 쳐들어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LPGA 박인비 우승 일지 2015.6.15 현재

- 2008년 (1승) US여자오픈
- 2012년 (2승) 에비앙마스터스, 사담다비 말레이시아
- 2013년 (6승) 혼다 LPGA 타일랜드,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노스텍사스 슈타트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윌리엄스 NW 아칸소 챔피언십, US여자오픈
- 2014년 (3승)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푸본 타이완 챔피언십
- 2015년 (3승) HSBC 위민스 챔피언십, 노스텍사스 슈타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팀 최강희 vs 팀 슈틸리케 K리그 올스타전 7월17일 열려

K리그 '별들의 잔치'에서 최강희 감독과 올리 슈틸리케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지라대결을 벌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오는 7월17일 안산 경찰청 축구단의 안방인 '안산와스타디움'에서 2015 K리그 올스타전을 개최한다. 이번 올스타전은 '팀 최강희'와 '팀 슈틸리케'의 대결로 전개된다.

K리그 클래식에서 업그레이드된 '다공'과 조직력으로 전북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최강희 감독과 실용축구를 기반으로 한 한국축구의 판을 바꾸고 있는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의 팽팽한 지라싸움이 축구팬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별 중의 별을 뽑기 위한 투표도 시작됐다. 15일부터 네이버 모바일을 통해 진행되는 'K리그 올스타 팬투표'는 4-4-2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며, 팬들이 '팀 최강희'와 '팀 슈틸리케'를 구성할 22명을 선택하게 된다. 올스타전 선수선발위원회가 K리그 클

래식 소속 선수들의 활약을 평가해 포지션별 4배수인 44명으로 후보를 구성했다.

총 22명의 올스타전 선수단은 팬투표 70%와 K리그 클래식 12구단 감독 및 주장(12명) 투표 30%를 반영해 최종 확정된다. 또 정해진 22명을 놓고 최강희 감독과 슈틸리케 감독이 각각 '팀 최강희'와 '팀 슈틸리케' 구성을 위해 11명씩을 포지션별로 다시 한 번 선별하게 된다.

클래식 리그 5위 질주를 하고 있는 광주 FC에서는 김호남(좌측 미드필더), 임선영(우측 미드필더), 이종민(우측 수비수) 등 3명이 올스타전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전남 드래곤즈는 최고령 김병지(골키퍼)와 함께 이종호(공격수), 안용우(좌측 미드필더), 최효진(우측 수비수) 등 4명이 올스타전 출전을 노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전망대

이범호·나지완 살아야 5할 뚫는다

KIA, 마운드 안정 속 방망이 들쭉날쭉
 중심타자 부활이 변수
 주중 LG·주말 kt 승수쌍기 승부처



연승 없는 KIA, 분위기를 이어야 한다.

KIA에게는 '죽음의 6연전'이었다. 천적으로 꼽히는 넥센과 삼성이 나란히 안방을 찾았지만 '3승2패+우천취소'로 험난했던 6연전을 잘 마무리했다.

30승30패. 5할 승률에서 다시 시작하게 된 KIA에게 필요한 것은 연승이다. 연패가 없지만 연승도 없는 KIA다. 지난주 KIA의 전적은 승패승패승(우천취소)이었다. 6월 첫째 주에도 승패승(우천취소)승패를 기록했다. 승과 패가 반복되면서 5할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뜨거운 화요일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순위싸움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KIA는 지난 5월26일 장단 16안타를 터트린 방망이 덕에 한화를 상대로 10-3의 시원한 승리를 거두며 한 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제자리로 돌아간 방망이 탓에 2연패로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지난 2일에도 두산의 니퍼트를 폭격하며 9-1로 화끈하게 한 주를 열었지만 다음날



이범호

나지완

김주찬의 솔로포로 1점을 만드는데 그치며 승리를 잊지 못했다. 9일에는 필의 역전 만루포를 앞세워 화요일 3연승에 성공했지만 타선의 답답한 흐름 속에 수요일 3연패를 기록했다.

첫 단추를 잘 꿴다고 잊지 못하는 상승세. 꾸준함 없는 타선 이 연승을 막고 있다.

마운드는 안정세다. 양현종·스틴슨에 이어 김진우가 선발진에 복귀함을 더했다. 험버도 어렵게 3승을 하며 혼합 돌렸

고, 에너지를 채운 서재응은 선발로 대기를 하고 있다. '파워볼펜'을 구축했던 92라인에 홍건희 홀로 남았지만 넥센전 무사만루를 무실점으로 틀어막은 최영필과 전전후 김병현, 커브의 달인 김태영, 신입 베테랑 김광수 등 '경험의 불펜'이 새로 구축됐다.

나지완의 '한방'이 부활의 신호탄이었는지 깜짝포였는지에 따라서 타선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지난주 김기태 감독은 나지완을 1번에 파격 투입하는 등 감살리기에 공을 들였고 4번 타자로 돌아간 지난 13일 나지완은 결승 스리런을 날리면서 활짝 웃었다. 그러나 14일 경기가 우천취소되면서 진짜 모습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범호도 공·수의 변수다. 야간 특타까지 자처하며 부진 탈출에 애를 쓰고 있지만 이범호의 프로야구 통산 40번째 1300안타(-4), 26번째 2300루타(-18) 기록 달성은 미뤄지고 있다.

KIA는 주중 잠실로 LG를 상대한 뒤 안방으로 돌아와 kt를 만난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서 각각 3승1패, 6승을 기록하고 있는 두 팀이다. KIA는 LG전 4경기에서 팀타율 0.343, 출루율 0.418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다. kt와의 승부에서는 6경기를 15실점(자책점 12)으로 묶으면서 1.9%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에이스 양현종으로 LG전 첫 경기와 kt전 마지막 경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KIA가 앞선 강세를 이어가며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15일 현재)

팀	승	패	무	승률	연승
1 NC	35	25	1	0.583	2패
2 삼성	36	26	0	0.581	1패
3 두산	34	25	0	0.576	2승
4 넥센	35	28	1	0.556	2승
5 한화	34	29	0	0.540	2승
6 SK	30	29	1	0.508	1패
7 KIA	30	30	0	0.500	1승
8 롯데	30	33	0	0.476	1승
9 LG	27	36	1	0.429	2패
10 kt	17	47	0	0.266	2패

'이달의 감독상' 양현종·김민우

KIA가 김기태 감독이 직접 수상자를 정하는 '이달의 감독상' 5월 수상자로 양현종과 김민우가 선정됐다.

양현종은 5월 한 달간 5차례 선발에 나서 31이닝 동안 34개의 탈삼진을 솜아내는 등 평균자책점 0.87을 기록하며 2승을 거뒀다. 에이스의 본색을 보여주면서 탄탄한 마운드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베테랑 김민우는 5월 20경기에 출전 71타수 27안타(2홈런) 11타점 10득점 타율 0.380을 기록하며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줬다. 내야 모든 포지션에 출전하며 내야를 지켰고 결정적인 타점까지 올리며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매달 투수·야수 각 1명에게 돌아가는 '이달의 감독상'은 KIA의 공식지정병원이 연희한방병원이 시상을 맡고 있으며 상금은 50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